CT조영검사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설문의 유용성 : 조영제 부작용과 위험요인과의 관계

전남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김영덕, 은성종, 김용완, 안인현, 이종호, 최남길

목 적 : CT조영검사의 조영제 부작용과 사전 설문상 위험요인과의 관계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사전 설문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CT조영검사를 시행한 8,760명의 환자 중 응급환자나 소아환자 등 설문에 응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제외한 6,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CT조영검사는 비이온성 조영제 300 mg I/ml를 자동주입기를 사용하여 초당 1.5~5 ml, kg당 2~2.5 ml로 총 80~150 ml를 투여하여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부작용의 발생률과 부작용의 유형을 알아보았고 또한 사전 설문에 기재한 위험요인과 부작용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 : 조사대상자 6,000명 중 위험요인을 가진 2,315명(38.58%)의 환자에서 3,513개의 위험요인이 있었다. 위험요인은 고혈압 1,021명, 당뇨 732명, 천식 466명, 심장질환 386명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 발현시간은 모든 경우에서 주사 직후부터 2시간 이내였고, 지속시간은 1분에서 7일까지였다. 부작용 발생률은 약물부작용의 위험요인이 있는 164명 중 18명(10.97%)으로 전체 부작용 발생률 1.8%보다 약 6배정도 높았으며 알레르기(두드러기)가 228명 중 17명(7.45%), 심장질환이 386명 중 17명(4.40%), 신장질환이 322명 중 11명(3.41%)순 이었다. 각 위험요인별 부작용은 알레르기(두드러기)와 약물부작용을 가진 환자군 모두에서 두드러기(가려움증)가 각각 58.82%와 55.55%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구토(오심)가 43.47%의 발생률을 보였다. 검사결과 조영제 부작용은 108명에서 나타났고 증상은 116예 였다. 구토(오심)가 48명(41.38%)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가려움증)가 39명(33.62%), 현기증이 18명 (12.07%)순 이었다. 부작용을 보인 108명 중 위험요인을 기재한 환자는 65명(60.19%)이었고 위험요인을 기재하지 않은 환자는 43명(39.81%)이었다.

결 론 :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 군에서 높은 부작용 발생률을 보였고 따라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위험요인의 파악이 부작용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